

著者共引用매핑과 學問의 知的構造變化

—한국사영역을 대상으로—

Author Co-citation Mapping and Changes of Intellectual Structure in a Subject Area:with Reference to Korean History

조명희(Myunghee Cho)*

□ 목 차 □

- | | |
|-------------------------|-------------------------|
| 1. 緒論 | 3.2 제2시기(1985-1989)의 構造 |
| 1.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 3.2.1 共引用關係와 類似度 |
| 1.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 3.2.2 多次元縮尺에 의한 著者위치도 |
| 1.3 理論的 背景 | 3.2.3 著者群集화와 主題領域 |
| 2. 學問의 知的構造分析을 위한 研究設計 | 3.2.4 因子分析에 의한 主題構造 |
| 2.1 分析過程 | 3.3 제1시기와 제2시기의 構造 比較分析 |
| 2.2 추적조사방법 | 3.3.1 共引用데이터의 비교 |
| 3. 韓國史領域의 知的構造變化에 관한 分析 | 3.3.2 研究者의 研究傾向의 變化 |
| 3.1 제1시기(1980-1984)의 構造 | 3.3.3 知的構造의 變化 |
| 3.1.1 共引用關係와 類似度 | 4. 分析結果에 대한 評價 |
| 3.1.2 多次元縮尺에 의한 著者위치도 | 4.1 리뷰자에 의한 評價 |
| 3.1.3 著者群集화와 主題領域 | 4.2 전문가에 의한 評價 |
| 3.1.4 次元에 따른 研究경향 | 5. 結 論 |
| 3.1.5 因子分析에 의한 主題構造 | |

초 록

본 연구는 학문영역의 지적구조의 변천과정을 규명하기 위하여 저자 공인용 데이터에 근거한 저자 유사도에 따라 저자를 매핑하며, 한국학 분야의 핵심연구영역인 한국사를 대상으로 1980년대를 두시기로 나누어 추적조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기법은 다차원축척과 군집분석이며, 더욱 미시적인 분석을 위하여 인자분석도 행한다. 또한 객관적 분석방법인 저자공인용 분석 결과와 한국사 연구자들의 주관적 평가를 비교하여 저자공인용 연구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행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fulfills two objectives of the study relating to the analysis of changing intellectual structure and its development of Korean history during 1980s: 1) investigation of intellectual structures of two successive time periods using author co-citation study analysis; 2) validation of the results of author co-citation analysis using assessments of experts collected from scholarly reviews and direct data drawn from the researchers in the area of Korean history. Three approaches to multivariate analysis as multi-dimensional scaling, cluster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are used to display the inter-author relationships in the author similarity matrix.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시간강사

1. 緒 論

1.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각 주제분야에서 생산되는 학술문헌은 해당 학문의 연구활동과 지식을 기록하여 표현한 산물로서 학술연구활동의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술문헌에는 해당학문 자체의 논리에 의해 체계적으로 구축된 독특한 연구방법, 학과, 이론, 주제영역 등의 知的構造가 내재하게 된다. 이러한 知的構造를 파악하는 것은 한 학문분야의 연구활동과 학문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분야의 정보이용 패턴을 파악하는 지름길이 되며, 원활한 정보유통체계 구성의 기반이 된다. 최근에 이르러 특정 학문영역의 구조가 계량정보학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많이 연구되고 있다. 예컨대 인용된 문헌이나 저자를 계수하여 군집분석기법에 따라 학문영역, 나아가서는 학제적 연구영역 등의 知的構造의 규명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共引用(co-citation)**된 저자를 계수하여 학문의 知的構造를 나타내는 著者共引用은 문헌이용자의 認知構造와 정보이용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이용자 위주 정보시스템의 구성이나 도서관과 정보센터에서 보다 향상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용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국내에서 분류표 개정, 시소러스 구축 등 여러 정보시스템 구성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기에 즈음하여 학문의 지적구조에 관한 연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한국사를 선택하게 된 것은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학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한국학 연구가 전례없이 발전하고 이

에 대한 바른 정보체계와 향상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연성이 야기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는 앞으로 국내의적으로 보다 더 가중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학분야의 효율적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필요성이 점증되고, 이를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학 중에서도 인문과학분야의 정보문제 연구는 매우 부진한 상황이므로, 본 연구는 위와같은 필요에 따라 한국학분야의 핵심영역 중의 하나이며, 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한국사를 분석대상으로 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자공인용 데이터에 근거한 다변량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사 학문영역의 지적구조와 그 변천과정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수행코져 한다.

첫째, 著者共引用分析技法을 이용하여 한국학 분야의 핵심영역인 한국사영역의 학술문헌의 知的構造를 공간상에 매핑하고, 시대변천에 따른 지적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부를 '80년대를 두 시기로 나누어 추적조사한다. 또한 이러한 학문의 지적구조상의 변화가 그 간에 나타난 한국사 연구결과와 학문발전상의 특징이나 학사적 제반 쟁점과 어떻게 연관되어 상응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객관적인 著者共引用研究결과를 한국사 연구자들의 주관적 평가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 한국도서관협회에서 간행한 「도서관학 정보학 용어 사전」에 의하면 co-citation을 “공인용”으로 부르며,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co-citation을 “공인용”으로, author co-citation을 “저자공인용”으로 부르기로 한다. Co-citation은 때로 “동시인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한국사연구의 중심지가 한국이라는 점과 학술잡지가 단행본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최신 연구결과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 문헌으로는 국내에서 간행되는 한국사영역의 핵심 학술잡지 7개를 선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시기는 한국학에 있어서 내외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1980년대의 문헌을 대상으로 제1시기(1980~1984)와 제 2시기(1985~1989)로 나누어 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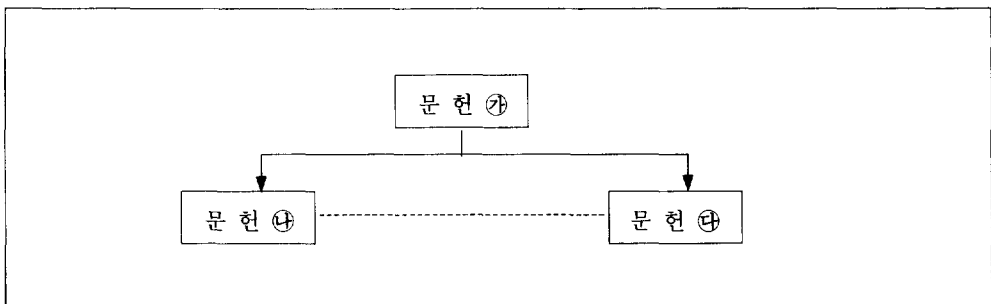
본 연구의 方法으로는 국내의 한국사 문헌들이 전 세계적 규모의 인용색인인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나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국내에서도 아직 독자적인 인용색인이 없기 때문에, 한국사 관련 핵심 학술잡지에 수록된 문헌을 직접 수집하여 파일을 구축하고 이를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수량적 방법인 著者共引用分析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1.3 理論的 背景

共引用이란 한 문헌이 두개의 문헌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引用된 두개의 문헌간에 共引用關係가 많다고 함은 다른 여러문헌에서도 두 문헌이 함께 引用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아래 그림 1은 共引用關係의 形成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서 化살표의 방향은 인용이 행해지는 방향을 나타내며 점선을 공인용관계를 표시한다. 문헌㉠은 문헌㉡와 문헌㉢를 共引用하였으며, 문헌㉡와 문헌㉢의 共引用빈도는 1이 된다. 문헌㉡와 문헌㉢는 共引用의 측정대상이 되는 문헌이다.

共引用빈도의 측정결과 빈도가 높은 문헌간에는 밀접한 주제관계가 있으며, 문헌간에 주제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낸 Small(1973)의 연구 이래 이 부분의 연구가 급격히 진전되기 시작하였다. 共引用빈도의 측정으로 문헌간의 유사성이 수량화되며, 이 수치에 근거하여 각 문헌이 二次元以上의 공간에 표시되어 매핑(mapping), 군집화(clustering) 등으로 나타냄으로써 학술문헌, 나아가서는 학술문헌의 생산근원인 학문영역의 구조가 위치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를 知的構造의 매핑이라고 하며 매핑한 결과를 學問圖(map of science, atlas of science)라 부르기도 한다. 이와같이 共引用분석기법은 學問領域의 生成, 成長, 消滅을 표현하는 間接적 지표(indicator)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그들의 사회적·인지적 구조의 지표가 되기도



<그림 1> 共引用 關係

한다 (Bellardo, 1980). 학문영역의 知的構造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共引用分析대상 단위로는 文獻, 文章, 著者 등이 있다.

저자공인용분석을 통하여 특정주제분야의 학문구조의 변화를 추적하여 분석한 연구로서는 Hopkins(1984)의 연구가 최초의 것이며, 그는 일찌기 Mullins(1973)가 미국 사회학분야에서 새로이 생성되고 있는 두개의 이론집단이라고 규명한 因果理論과 민족적방법론에 대한 추적연구를 통하여 두 연구영역이 사회학분야의 학문구조에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 Mullins의 예측이 실현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집단을 두 시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학문의 知的構造에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적조사 방법이 학문의 발전과 변화의 측정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著者共引用分析에 이용한 후속연구로 McCain(1984)은 거시경제학영역을 두 시기로 나누어 학문구조의 변화를 입증하였으며, 또한 초과리유전학분야(1986)에 저자공인용분석을 적용하여, 학문영역의 知的, 歷史的인 발전상황을 입증한 바 있다. 이러한 방법의 유용성은 저작물을 통하여 이미 입증된 저자들의 연구동향 확인뿐만 아니라 연구경향의 변화나 이론의 活用현황이 파악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해당학계내의 연구자들도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던 변화들이 위와같은 분석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2. 學問의 知的構造分析을 위한 研究設計

2.1 分析過程

본 연구는 1981년 White와 Griffith(1981a) 연구 이래 그 타당성이 검증된 분석방법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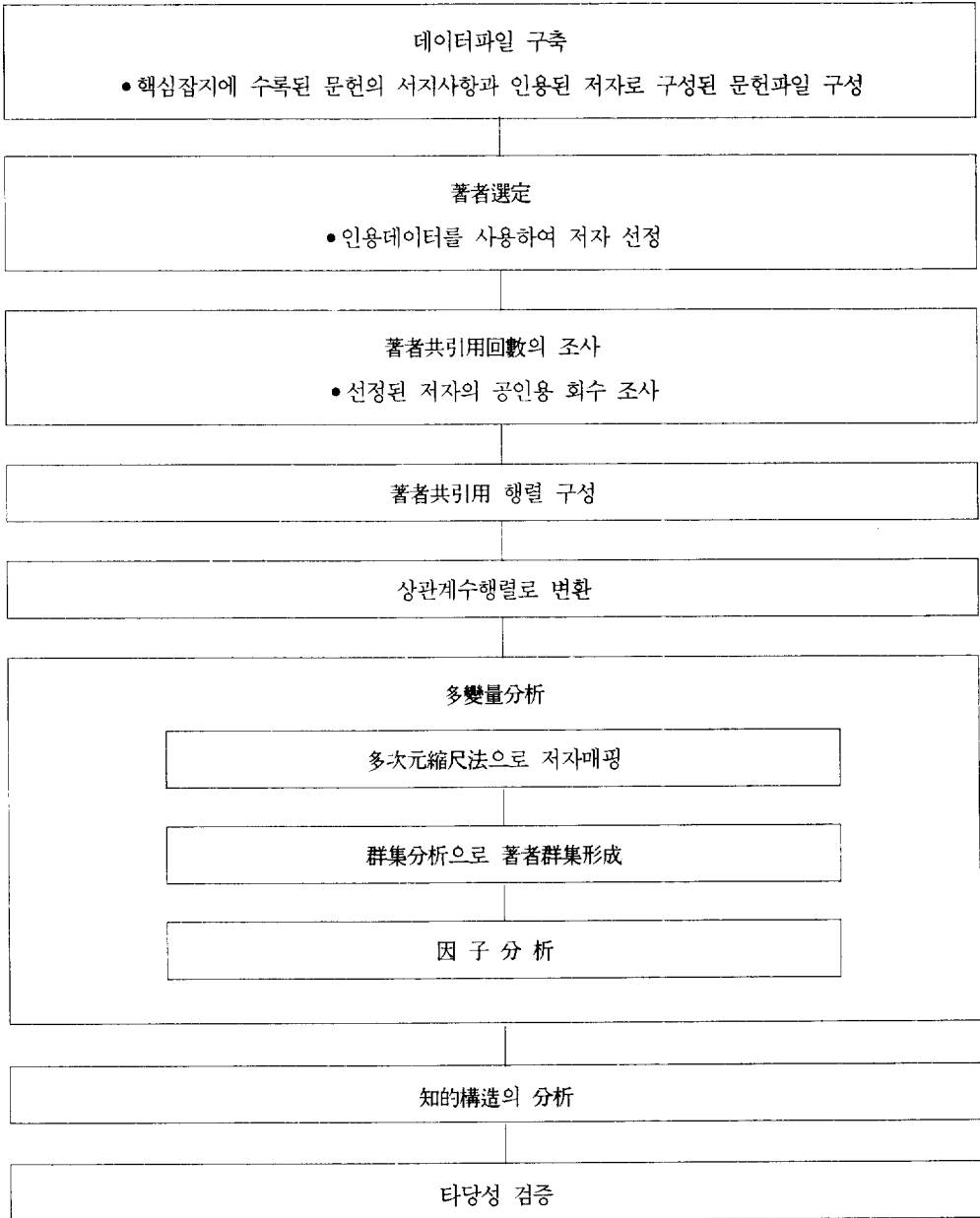
하였으며 한국사문헌을 대상으로 데이터파일을 論者が 구축하였고, 공인용빈도상 통계적으로 적절한 결과를 추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저자 67명을 선정하였다. 문헌소스데이터파일 구축 및 저자선정에 관한 것과 각 분석방법에 관한 기술적 설명은 著者(조명희 1992, 338-346)를 참조하시기를 바란다.

분석기법으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다차원축척과 군집분석을 사용하였거나, 혹은 인자분석만을 단독으로 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축척과 군집분석을 먼저 행하고, 후속으로 인자분석을 행하여 이들을 비교하고 군집내의 구성요소와 군집간의 관계들, 그리고 주제영역에 대해 더욱 미시적인 분석을 행하였다. 이러한 共引用 분석결과를 해석하고 각 군집에 적절한 명칭을 부여하기 위하여 인용된 문헌에 대한 조사와 저자들의 저작물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였다. 저자공인용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한국사영역의 전문적 평가리뷰 문헌에 수록된 내용들을 분석하고 한국사연구자들과의 면담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2는 韓國史領域의 知的構造分析을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알고리즘을 도식화 한 것이다.

1980년대에 7개의 핵심한국사관계 학술잡지(정춘화 1980, 42)에 수록된 한국사 논문으로서 최소한도 두 명 이상의 한국저자가 인용된 문헌을 대상으로, 총 472편의 논문을 추출하였다.

각 문헌에서 인용된 저자들의 빈도수는 한 문헌에서 한 저자가 여러번 인용되었더라도, 한번 인용된 것으로 취급하여 계산하였으며, 이렇게 산출된 빈도수의 최저치를 5회로 제한하여, 5회



〈그림 2〉 學問의 知的構造分析의 처리과정

이상 引用된 저자 115명을 대상으로 共引用빈도를 추출하였다. 이 저자들중에서 5명 이상의 다른 저자들과 각각 5회 이상의 공인용빈도를 가진 저자를 대상으로 저자세트를 구성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저자는 표1과 같이 모두 67명이었다. 이들 저자세트의 공통점은 조사대상문헌에서 10

회이상 인용되었고, 다른 다섯명 이상의 저자와 共引用관계가 각각 5회이상 나타난 점이다. 일차 선정된 저자 115명중 인용빈도가 30회 이상인 저자들은 27명이며 이들 전원(100%)이 저자세트에 포함되었고, 인용빈도가 20회이상인 저자 51명중 97%가 저자세트에 포함되며, 인용빈도가 15회이상

〈표 1〉 저 자 세 트

저 자 명	저 자 명	저 자 명
강 만 길	임 효 재	노 태 돈
강 인 구	정 두 회	황 수 영
강 진 철	천 관 우	김 상 기
김 당 택	최 몽 룡	김 의 규
김 두 진	최 재 석	고 병 익
김 용 섭	허 흥 식	최 승 회
김 원 용	김 용 덕	최 병 현
김 정 배	김 인 결	정 구 복
민 현 구	김 태 영	진 흥 섭
박 용 운	노 중 국	김 재 원
박 창 희	홍 승 기	이 흥 직
변 태 섭	이 순 근	김 영 하
신 용 하	이 광 규	김 영 태
이 광 린	이 우 성	이 만 열
이 경 식	한 병 삼	송 병 기
이 기 동	김 정 학	송 준 호
이 기 백	김 광 수	전 해 종
이 수 건	한 영 우	김 성 준
이 성 무	김 철 준	윤 무 병
이 용 조	한 우 근	황 기 덕
이 종 옥	하 현 강	이 재 룡
이 태 진	신 형 식	
이 현 혜	이 병 도	

인 저자들은 63명중 90%가, 인용빈도가 10회 이상의 저자 88명 중에는 75%가 저자세트에 각각 포함되고 있다. 인용된 빈도가 월등하게 많은 저자들은 대부분이 共引用빈도 또한 아주 높게 나타났으나, 인용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세트에서 제외된 저자들은 공인용빈도수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며, 이로써 인용빈도와 공인용빈도는 반드시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용빈도에만 근거하여 저자세트를 선정한다면 적절한 공인용데이터를 추출치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상저자 선정시 일괄적으로 인용빈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차적으로 인용빈도를 추출하되, 共引用빈도를 근거하여 選定함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된다. 즉 일정치 이상의 인용빈도를 가지면서 다수저자와 일정치 이상의 共引用빈도를 가지는 저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hite, Griffith, McCain 등도 모두 그들의 共引用연구에서 5회의 공인용빈도를 최저치로 하여 저자를 선택하였고, 이는 이러한 인용빈도를 가지는 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야만아 보다 확실하고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들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2.2 추적조사방법

일정기간동안에 그 기간내의 여러시점에서 연구대상을 측정하는 것을 추적연구라고 말하며, 이러한 조사방법은 특히 시간성에 좌우되는 여러 현상들의 조사와 인과관계의 조사에 유용하며 연구대상에 대한 풍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Vitalari 1985). 따라서 변화하는 유기체라고 볼 수 있는 학문영역, 연구분야를 대상으로 이와같은 추적연구방법을 통하여 그 특성과 변동과정이 추적될 수

있으며, 著者共引用연구에 적용하여 주제영역의 제반변화를 관찰하여 볼 수 있다. 著者共引用연구시 연속적인 특정기간을 나누어 추적조사 했을 때 새로운 이론집단의 발생 및 성장과 연구영역의 발생 등이 목격될 수 있으며, 동시에 저자들의 학술적 이동상황도 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다른 두 기간동안에 동일 저자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저자 매핑과 因子分析 결과 어떤 학문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저자들이 안정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른 학문분야에서는 저자의 위치에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변화가 나타났다면, 거기에는 설명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변화를 보인 저자가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학술적 이동을 하였거나, 새로운 연구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때 저자위치가 달라지게 된다. 著者共引用분석은 시간경과에 따라 새로운 학과발생이나, 학문영역의 성장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를 제1시기('80-'84)와 제2시기('85-'89)로 나누어, 著者共引用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사 주제영역의 구조변화와 성장 등을 추적 연구해 보고자 한다.

3. 韓國史領域의 知的構造變化에 관한 分析

3.1 제 1시기(1980-1984)의 構造

3.1.1 共引用關係와 類似度

먼저 전체 문헌파일에서 제 1시기에 생산된 문헌을 대상으로 저자집단으로 선정된 연구자들의 共引用關係를 조사하여 行列로 나타낸 결과 이 시기의 저자들의 공인용회수는 최하 0에서 부터 최고 22회

에 이르며, 22회가 공인용된 저자쌍은 이기백-김철준이며, 전체저자와 공인용된 빈도가 높은 연구자들은 이기백(352회), 이병도(232회), 김철준(224회), 변태섭(207회), 이우성(182회), 김광수(161회), 신형식(158회), 천관우(156회), 김용섭(136회) 등으로 나타났다.

이 共引用行列을 PROXIMITIES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행렬로 변환시켜, 저자쌍의 상대적인 類似性을 나타내는 상관계수행렬을 出力하였다.

상관관계가 높게, 즉 유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저자쌍은 김정학-김원용으로서 0.9453의 유사도값을 가지며, 상관관계가 부정적관계를 보이며 유사도가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난 저자쌍은 -0.33482의 유사도값을 가지는 김재원-송병기로서 이들은 共引用된 경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2 多次元縮尺에 의한 著者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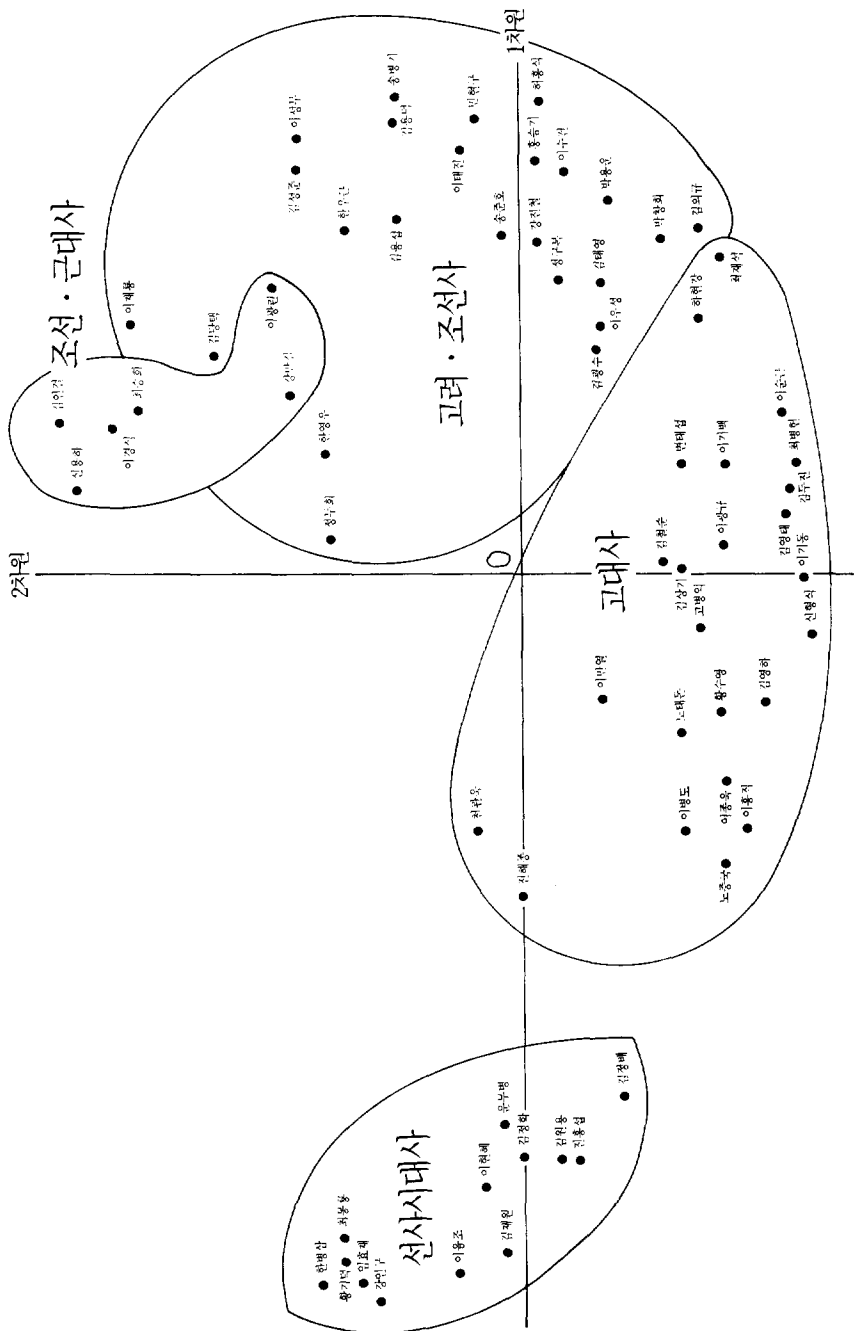
유사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각 저자들의 類似度에 따라 점으로 표시된 저자위치도를 출력시켰다. 수평축은 제 1차원, 수직축은 제 2차원을 나타내며, 각 저자의 유사도에 따라 점의 위치는 좌표값으로 나타나며, 각 저자는 이 좌표값에 따라 2차원상의 공간에 나타나고 있다. 일차원의 좌표값중 가장 낮은 값인 -2.2328을 보인 강인구는 그림 3의 저자위치도에서 수평축의 가장 왼쪽에 위치하며, 가장 높은 값인 1.4999를 보인 송병기는 수평축의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다. 이차원의 좌표값중 가장 낮은 값을 보인 신형식은 그림 3에서 수직축의 중심에서부터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가장 높은 값을 보인 김인걸은 수직축의

가장 상단에 표시된다. 이차원지도에 점으로 표시된 저자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김정학-김원용쌍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자위치가 매우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며, 가장 낮은 값을 보인 저자쌍인 김재원-송병기는 평면의 좌우 양극단에 가장 떨어져서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각 저자의 위치가 類似關係에 따라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3.1.3 著者群集化와 主題領域

저자위치도에서 곡선이 그어져 구분된 것은 계층응집식군집분석에서 군집으로 구분된 것들로서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4개로 식별되었다. 이들은 상호 밀접히 연결된 군집 3개와 1개의 독립된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한 군집 이외에는 세 군집이 각 경계부분에서 상호 관련성이 많은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왼쪽의 군집은 先史時代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고고학적인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선사시대나 고대사 등을 연구하고 있는 영역이다. 따라서 이 군집을 유적 발굴 등을 통한 지식의 이용 등 독자적인 연구방법의 사용으로 독립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으며, 고고학적 방법론을 이용하는 선사시대사 연구영역으로 명명할 수 있다. 이 군집은 한국대학의 고고미술사학과, 고고학과, 사학과(한국고대사 전공) 등에 교수로 소속된 적이 있거나 현재 재직하고 있는 연구자 10명과 박물관에 근무했거나 현재 재직하고 있는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명은 미상이다. 인적사항의 파악이 어려운 황기덕씨와 타계하신 김재원씨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의 연령분포는 40대가 두명, 50대가 다섯명, 60대 이상이 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고학적 방법을 사



〈그림 3〉 韓國史 領域의 構造 (제 1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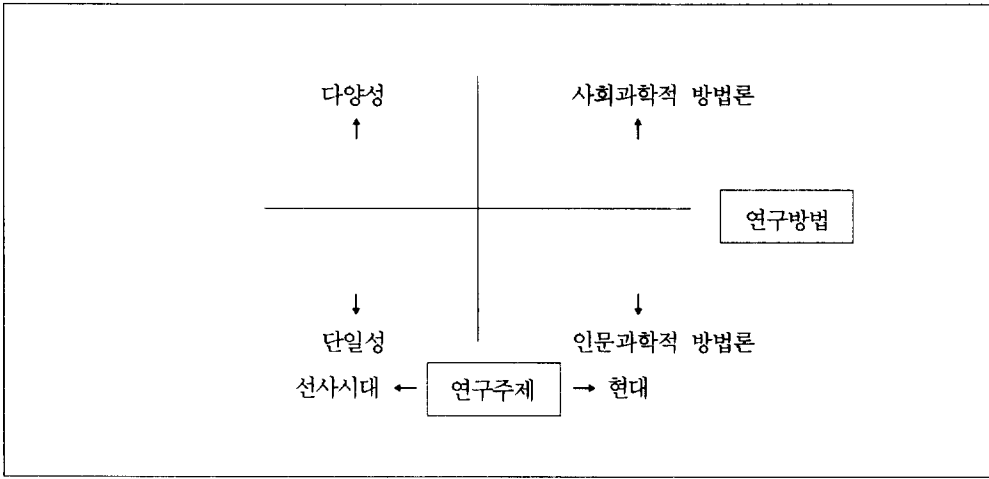
용하는 연구영역의 주요 연구자들의 연령분포가 상당히 높으며, 주제연구에 있어서 많은 지식의 축적과 아울러 오랜 경험이 또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구성원 13명 중 11명이 박사학위소지자로 그중 6명은 미국, 일본, 독일등에서 최종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주제가 외국과의 학문적 연계가 많은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영역은 고대사, 고생물학, 인류학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특히 고대사 연구와 상호 연결되어 있어 한국고대사가 전공분야로 고고학적 방법을 많이 이용하는 연구자들인 이현혜와 김정배 등도 이 군집에 속하고 있으며, 이 영역의 공통점이 고고학적 연구방법의 이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군집에 북한의 고고학자인 황기덕이 나타나는 것은 고고학 연구분야에서 북한과의 공식적 학술커뮤니케이션이 소수나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으며, 남북한 학술연구결과에 대한 상호교환의 필요성이 노출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수평축의 중앙하단과 수직축의 좌우에 걸쳐 나타나는 큰 군집은 고대사 연구영역으로서 원점에서 수평축의 왼쪽으로 갈수록 고대사영역이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려사에 관한 연구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이 군집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중에는 김상기, 이홍직, 김철준, 이병도, 천관우 등 대부분 80년대후반 이후에 타계한 학자들이 포함되며(21%), 연령분포는 3·40대가 33퍼센트, 50대가 17퍼센트, 60대 이상이 29퍼센트의 비율을 보이고 타계한 분들을 포함하여 60대 이상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80년대 전반기의 고대사 영역에서 이들의 학술적 공헌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한국사영역의 자

료이용 수명이 자연과학과 비교하여 볼 때 길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으나, 생존한 저자와 타계한 저자와의 보이지 않는 제반 사회적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으며 현재 활동하는 연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군집 구성원의 약 87퍼센트(21명)는 사학전공자로, 대부분이 한국사 전공자이며 동양사 전공도 두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의 주된 연구영역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정치·사회·사상사이다. 사회학자인 최재석, 인류학자인 이광규, 불교학자인 김영태, 미술사학자인 황수영 등이 이 군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고대사 연구영역이 동양사, 사회학, 인류학, 불교학, 미술사 등과 학제적 연구 경향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 준다. 연구 영역중 신라시대의 연구가 많으며, 특히 불교사상사는 거의 신라와 연루된 연구이며, 정치 사회사도 신라에 관한 것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경제사 연구는 드문 편이며, 신라에 관한 연구가 많은 것은 신라관계 사료가 풍부하여 연구동기가 부여되었다는 이유를 제기 할 수도 있으나, 같은 시기의 다른 古代國家의 여러가지 研究가 併行되어야만 객관적인 검증과 비교가 가능하고 전반적인 古代史의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 변태섭, 이기백, 김철준, 이병도는 共引用빈도에서 3회이상의 평균치를 보인 저자들로서, 이 군집의 대표적인 주제성향을 나타내며 이 영역의 中心人物들이며, 이들은 모두 한국사영역 전체의 중심인물로서 모두 고대사영역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대사영역이 한국사 전체영역에서 중심적 학문 활동을 하는 연구영역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古代史領域과 경계를 같이 하면서, 수평축의 오른쪽 上下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군집은 고려 조



〈그림 4〉次元에 따른 연구경향

선사 영역이며, 이 영역은 주로 고려시대의 정치 사회경제사와 조선사회 경제사 신분 토지 정치사 등을 나타내고 있다.

고려 조선사 군집 상단에 돌출된 클러스터는 조선 근대사 연구영역이며, 조선후기와 근대의 토지 관계, 경제 신분 사상사 등 사회학적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저자들로 구성된 복합적인 연구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저자 신용하는 사회학자로서 근·현대사 전반에 걸쳐 사회학적 연구업적과 함께, 한국사 연구영역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연구자이며, 특히 근대사 연구분야에서 한국사와 사회학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강만길과 이광린은 사학적 측면에서 사회사상과 경제와 같은 사회학적인 관심을 보여왔으며, 근·현대사연구의 중심 역할을 하는 저자로 나타났다. 이 군집의 구성원의 연령 분포는 40대가 2명, 50대가 3명, 60대가 1명이며, 모두가 대학에 재직했거나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 네개의 군집은 한국사 영역이 체

계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며, 전반적으로 고대사, 고려·조선사, 조선·근대사 등과 같은 시대별 구분으로 되어 있다. 즉 사회사, 경제제도, 토지제도사, 사상사, 정치제도사, 신분사 등 세분화된 하위 주제영역이 체계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이와같은 연구가 한국사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가 행해지기는 하나, 이러한 각각의 주제영역에서 전문연구자들이 이론, 방법론, 연구지향점, 연구문제에 합의적이고 일관성있는 지적전통을 가진 연구 패러다임이 成立된 상태가 아님을 보여준다. 한국사 학술영역에서 知的인 변화가 진행중에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러한 가능성은 제1시기의 학술문헌에서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3.1.4 次元에 따른 연구경향

저자위치도상에 매핑한 결과를 살펴볼 때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一次元인 수평축의 경우 중심에서 좌측으로 이동할수록 고대 선사시대사 영역이

되고 중심에서 우측으로 이동할수록 고려, 조선사와 같이 역사적시대가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평축이 연구대상영역의 시간적 요소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4와 같이 二次元인 수직축 하단은 대부분이 古代와 고려연구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주로 문헌조사를 통한 연구나 문헌고증을 통하여 사학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직축의 상단원편에 위치한 군집은 주로 유적답사나 발굴 등 실물확인을 통해 얻어지는 고고학적 지식을 이용하는 집단이다. 이에 비해 오른쪽 상단의 군집은 문헌연구와 더불어 실재사료의 발굴이나, 사례연구, 면접 등 실증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즉 중심에서 하단으로 이동할수록 문헌연구를 통한 접근방법만을 이용하여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는 인문과학적 연구경향을 보이며, 상단으로 갈수록 문헌연구와 더불어 유적발굴결과나, 사례연구, 사료발굴, 실증적 조사연구와 같은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집단이다. 이 군집에는 사회학자인 신용화가 소속해 있고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구영역은 조선 근대사영역이며, 시대에 따라 연구방법의 적용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1.5 因子分析에 의한 主題構造

앞서 행한 多次元縮尺과 群集分析에 의한 매핑으로 나타난 知的構造에 대한 확인과 좀더 세분된 주제 구성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인자분석을 행하기 위하여 아이젠값을 1로 잡아 상관행렬을 입력시켰다. 또한 사각회전(oblimin rotation)을 시켜 인자행렬(factor structure matrix)을 구하여, 13개의 인자가 추출되었으며 이들의 총 누적

변량은 86.3퍼센트이다.

각 인자명은 저자공인용분석시 0.7보다 큰 적재값을 가진 저자들이 인자해석에 유용함을 제공한다는 선행연구 결과(McCain 1990, 440)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조사대상문헌에서 해당저자의 인용된 문헌을 추적하여 인용빈도가 높은 논문의 주제를 참고하여 자자의 저술경향이나, 리뷰를 참고하여 명명하였다. 표 2에서는 각 인자에 0.5이상 적재된 저자만 추출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이 때 적재값은 소수점 두자리까지만 표시하였다. 표 2의 각 인자가 나타내는 주제영역을 살펴보면, 고대사는 사회사, 정치사, 불교사상사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고려사는 정치사 연구가 가장 활발하고, 토지와 농업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사연구, 불교사상사가 주를 이루며, 조선사는 정치사와 신분사, 경제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반면 조선 근대사에서는 전반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군집분석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先史時代史는 표 2의 인자 2와 완전히 동일하고, 조선 근대사는 인자 5와 거의 유사하여, 고대사 군집에는 인자 7, 9, 12가 포함되며, 고려 조선 군집에는 인자 1, 3, 4, 8, 10, 13이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인자분석은 각 군집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식별해 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서 또한 활발한 연구가 행해지는 하위주제영역을 식별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 연구자가 공헌하는 연구영역의 범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인자분석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인자에 일정치 이상의 적재값으로 중복적재된 저자를 규명하여 봄으로써 가능하다. 인자 4, 10, 11이 고려정치사로 동일주제영역으로 보고 중복적재된 저자들을 찾아보면, 이병도가 인

<표 2> 因子分析(제1시기)

인 자 1	인 자 2	인 자 3	인 자 4	인 자 5	인 자 6
김태영 .92	김재원 .94	강만길 .85	김의규 .85	이경식 .83	이광규 .90
강진철 .84	강인규 .93	정두희 .69	김당택 .84	김인걸 .81	이기동 .83
홍승기 .77	김원용 .92	이재룡 .66	박창희 .78	신용하 .80	이순근 .83
정구복 .76	윤무병 .91	김성준 .60	박용운 .69	송병기 .59	이종욱 .80
김용섭 .70	임효재 .90	한우근 .60	변태섭 .51	이광린 .58	최재석 .79
하현강 .69	최몽룡 .89	한영우 .58	김광수 .50	김용섭 .56	김철준 .78
이우성 .69	진홍섭 .87				신형식 .75
박창희 .59	김정학 .87				이기백 .69
송병기 .58	황기덕 .87				변태섭 .66
변태섭 .57	한영우 .86				최병헌 .54
김상기 .56	이현해 .74				노태돈 .53
민현규 .55	이윤조 .73				김영하 .53
이기백 .51	김정배 .67				이병도 .53
고려경제사	선사시대사	조선경제·정치사	고려정치사	조선말·근대사	고대사회사

인 자 7	인 자 8	인 자 9	인 자 10	인 자 11	인 자 12	인 자 13
황수영 .91	송준호 .82	전해종 .88	민현규 .77	이태진 .80	천관우 .81	최승희 .85
김영태 .86	이성무 .63	고병익 .80	박용운 .71	하현강 .66	이병도 .57	한영우 .77
이홍직 .81	허홍식 .56	김영하 .65	허홍식 .62	이우성 .65	노중국 .53	김성준 .77
이기백 .77		이병도 .64		김광수 .64	이만섭 .52	한우근 .64
최병헌 .76		이만열 .62		김용덕 .63		이재룡 .56
신형식 .74		노중국 .56		허홍식 .60		이성무 .53
김두진 .73		김상기 .54		최병헌 .56		
이기동 .71		김정배 .52		이수건 .53		
변태섭 .64		이홍직 .51				
이병도 .64		천관우 .51				
김철준 .61						
이만열 .52						
김영하 .50						
고대불교 사상사	신분제도사	고대정치사	고려정치사	고려정치사	고대사일반	조선정치사

자 6, 7, 9, 12에 변태섭이 인자 1, 4, 6, 7에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학문적 관심의 범위가 넓음을 알 수 있다.

세계의 인자에 적재되어 있는 연구자로서 이기백은 인자 1, 6, 7에 이만열은 인자 7, 9, 12에 허홍식은 인자 8, 9, 11에 김영하는 인자 6, 7, 9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김철준과 신형식, 최병현, 이기동은 인자 6과 7에 김상기는 인자 1과 9에 이성무는 인자 8과 13에 각각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이 저자들의 연구경향을 알 수 있다. 인자 2의 저자들처럼 한개의 인자에만 적재되어 있는 저자들은 비교적 고유한 연구영역을 고수하고 있는 저자들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13명중 先史時代史에만 적재된 저자가 12명으로 나타났고, 김정배만이 인자 2와 9에 적재되었다. 고대사회사 영역에는 이광규, 이순근, 이종욱, 최재석, 노태돈이, 전해종, 고병익, 노중국은 고대정치사 영역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주된 관심과 전념하는 연구주제를 알 수 있다. 또한 황수영, 김두진은 고대불교 사상사 한 인자에만 적재되어 있어 이들이 불교사상 연구에 전념하는 저자들임을 알 수 있다.

13개 인자간의 유사관계를 조사하여 보고자 유사도행렬을 구성한 결과, 주제간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유사도값 .30이상을 가진 쌍은 인자 6과 7, 인자 7과 9로 나타나며, 이들은 고대사회사-고대불교사상사, 고대불교사상사-고대정치사로서 모두 고대사군집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대사 군집은 고대사회사, 불교사상사, 고대정치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3가지 소주제가 고대사영역의 활발한 연구영역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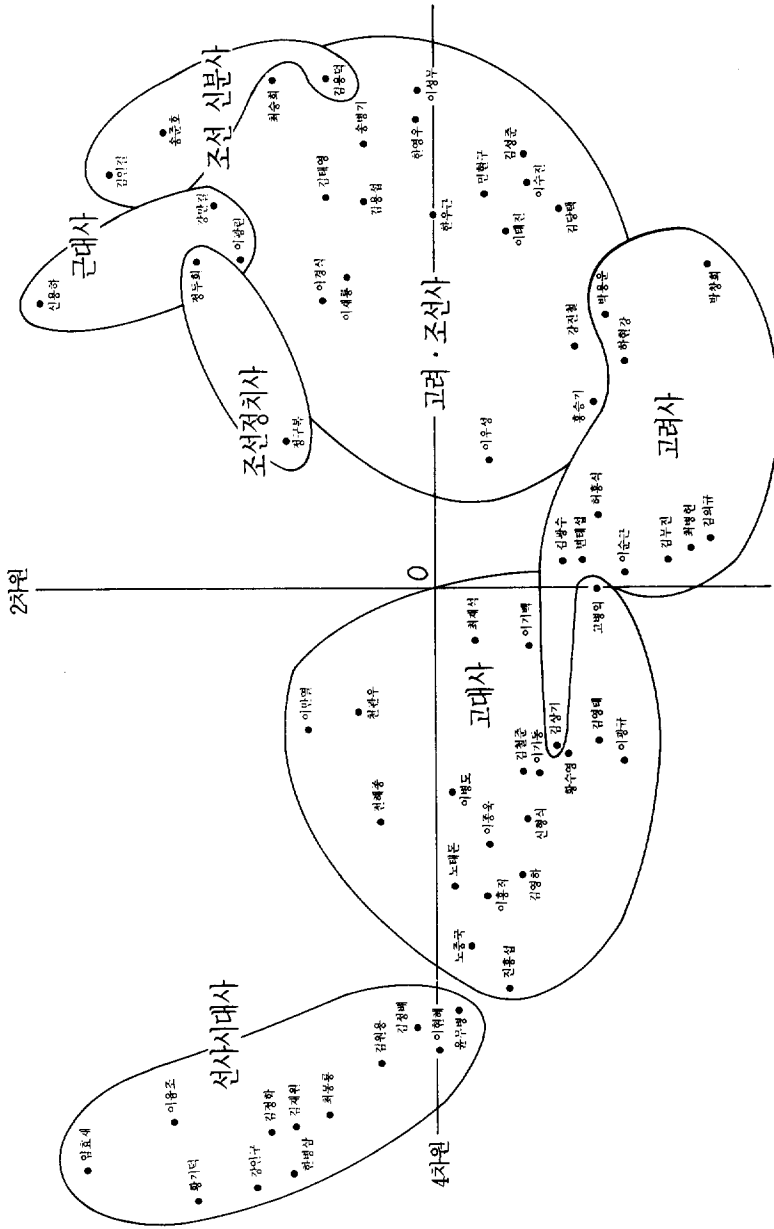
3.2 제 2시기(1985-1989)의 構造

3.2.1 共引用關係와 類似度

1985년에서 1989년에 해당하는 문헌을 문헌과 일에서 검색하여 共引用回數의 행렬을 작성하였다. 유사도행렬에서 황기덕과 이수건은 계수값이 -.37733으로 유사도가 가장 낮은 저자쌍으로 공인용 회수가 한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원용과 김정배는 .95805으로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가지고 있으며, 김철준과 이기동, 김철준과 이병도, 김두진과 최병현, 이기백과 김철준 쌍이 약 .90으로 매우 높은 유사도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약 .85이상의 유사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저자는 최몽룡과 김정학, 이성무와 이태진, 이종욱과 김철준, 강진철과 이우성, 김원용과 최몽룡, 이성무와 한영우, 김원용과 김정학, 김정배와 김정학, 김정배와 최몽룡, 변태섭과 이기백, 김철준과 노태돈, 김철준과 신형식, 강인구와 이용조 등이며, 이들은 共引用된 회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공인용으로 나타난 유사성의 면모도 높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3.2.2 多次元縮尺에 의한 著者위치도

저자위치도에서는 유사도 행렬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인 황기덕과 이수건이 그림 5의 한국사영역의 구조도에서 좌우로 멀리 떨어져 나타나고 이에 비해 높은 유사도를 보인 김원용과 김정배, 김철준과 이기동, 김철준과 이병도, 김두진과 최병현, 이기백과 김철준 쌍이 매우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각 저자쌍은 유사도에 따라 근접여부가 결정되며, 따라서 이들은 공통의 주제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66명과 3회이상의 共引用된 평균치를 가진 저자는



〈그림 5〉 韓國史領域의 構造(제 2시기)

김정배, 천관우, 이병도, 이종욱, 김철준, 이기동, 이기백, 김광수, 변태섭, 김용섭, 이태진 등이다. 이들은 한국사 영역의 구조(그림 5)에 나타나는 저자위치에서 각 군집의 중심부에 표시된 저자들로서 군집전체에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저자들이 나타나는 군집은 한국사에서 가장 연구가 활발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3.2.3 著者群集화와 主題領域

제 2시기에는 전체적으로 7개의 군집이 나타나며, 1개의 군집만이 독립적이며 나머지는 상호 근접하거나 서로 경계가 연결된 형태로 나타나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위치도의 가장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태원형의 군집은 12명의 구성원중 10명이 고고학을 전공한 저자들이고 2명은 한국고대사 전공자이나 고고학적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저자들로 구성된 선사시대사 연구영역으로 식별된다.

선사시대사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큰 군집은 한국고대사 연구영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로 삼국시대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저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군집에는 평균 공인용회수가 높은 저자들 11명중 6명이 속해 있어 전 한국사영역 중에서도 활발한 연구영역에 속하며 연구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천관우, 이병도, 이종욱, 김철준, 이기동, 이기백은 이 군집의 중심에 위치하고 또한 이들은 공인용회수행렬의 대각선 값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들은 고대사 연구영역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으며, 타 저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정보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총 11명으로 구성되어진 고려사 영역은 타계한 김상기씨를 제외한 10명중 50대이하의 저자가 대

부분으로(8명) 나타나며 소員이 대학에 재직했거나 현재 소속되어 있는 저자들이다. 이 군집에 속한 저자들은 고려사 연구가 주된 영역이지만 고대사와의 경계부분에 위치한 저자들의 경우 신라말 고려초의 정치 변동에 관한 연구에 공헌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다른 66명과의 평균 공인용값이 높게 나타난 변태섭과 김광수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저자임을 알 수 있다.

저자위치도 오른쪽에 위치하는 고려 조선사를 나타내는 큰 클러스터는 구성원이 17명이며, 40대가 4명, 50대가 6명, 60대가 7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강진철과 김용덕은 90년이후 타계하였다.

수평축을 중심으로 상하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이 클러스터의 하단에 고려연구영역과 접해있는 위치에 나타난 강진철, 홍승기는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나 노비 등 사회경제 연구에 공헌하고 민현구, 김당택, 김성준 등은 정치세력이나 제도 등의 연구를 많이 행하는 저자들로 나타났다. 고려사 저자들과 인접하여 나타난 이태진은 사회사연구에 정진해온 저자로서, 고려 조선사 영역의 하단 중심부에 위치하며, 평균 공인용회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영역의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저자라고 할 수 있다. 수평축의 상단은 상호근접하여 위치한 김용섭, 이경식, 김태영, 이재룡이 공헌한 조선의 농업, 토지제도 등 사회경제사연구 부분을 나타낸다. 또한 고려 조선사 영역의 중심에 위치한 김용섭은 66명 저자와의 평균 공인용 회수가 많은 중심인물로서 이 연구영역의 학술활동에서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식별된다.

조선사의 하위주제 성장의 일환으로 해석되어지는 조선신분사를 나타내는 영역은 고려 조선사 연구영역의 상부에 연이어 나타나며, 조선후기의 사회사 중에서도 신분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체계를

확립한 집단임을 보여준다.

고려 조선사 영역의 상부원쪽에 위치하는 클러스터의 구성원들은 사학사연구에도 공헌이 많지만 정치적배경연구라는 요소를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 영역이 조선정치사 연구영역이 되며 이 연구영역이 조선사연구에서 성장발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두희와 정구복은 동일 학교에서 이광린으로부터 학위논문지도를 받은 저자들이라는 사회적 관계도 가지고 있다.

저자위치도중 가장 상단에 나타나는 군집은 강만길, 이광린, 신용하로 구성되었다. 강만길과 신용하의 유사도는 .85, 이광린과 신용하의 유사도는 .63, 강만길과 이광린의 유사도는 .48로 나타났다. 강만길, 이광린 모두 사회학자인 신용하와는 높은 유사도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이 한국사 저자인 다른 6명 저자와의 평균공인용된 값은 매우 낮으며 강만길이 .38로 그중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 영역이 독자적인 연구주제와 연구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오래되지 않으므로 다른 저자와 빈번히 공인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진다. 또한 두 한국사저자 모두가 사회학자인 신용하와 높은 유사도를 보이는 것은 이 영역의 연구경향이 사회학과의 연계가 깊다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들의 인용된 문헌을 조사해본 결과 조선말, 개화기의 사회사상과 사회변혁의 요소로써 정치운동사등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군집이 근대 정치사를 중심으로 근대사 일반영역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2.4 因子分析에 의한 主題構造

사각회전결과 인자 11개가 나타난 인자행렬(structure matrix)을 구하였으며, 각 인자에 적

재된 변인중 ± 0.5 보다 많은 값을 가지는 변인만 추출하여 표 3과 같이 재배열하였다. 이 표는 각 인자에 적재된 변인인 저자들의 적재값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이만열의 경우 다른 인자에 적재된 값보다 인자 1에 .45로 적재된 것이 가장 높은 적재값이나 해석상 필요하므로 포함시켰다. 11개 인자의 누적변량은 85.9%이며, 높은 전체변량을 가진 인자는 인자 1의 27.9%와 인자 2의 23.4%로 나타났다.

각 인자는 앞서의 군집분석결과 나타난 주제영역의 성격과 특징을 좀더 세밀하게 나타내고 각 영역의 구성요소들을 파악 할 수 있다. 즉 선사시대는 인자 2, 조선정치사는 인자 5, 근대정치사는 인자 6, 조선신분사 연구는 인자 4로 요인과 군집의 주제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고대사 군집에는 인자 1, 8, 10이 속하여 고대사 연구영역이 정치사, 사회사, 불교사상사 중심이며, 고려정치 사상사 군집에는 인자 7, 9, 11이 속하여 이 영역이 정치사와 불교사상사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고려조선연구영역에는 인자 3과 11이 속하여, 고려 조선의 사회경제 연구와 고려정치사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열, 천관우, 이종욱은 인자 1인 고대정치사에만 적재되어 있는 저자들로서 이만열은 다른 인자 적재값보다 이 인자에 높은 값으로 나타나나 값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아 본 연구의 분석에서 가시화하지 않은 다른 영역의 연구주제로 학술적 이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전문가와의 면담시 이 저자를 고대사 연구영역이 아니라 기독교사 연구영역으로 분류했던 사실과 최근의 학술논문이 근대기독교사 관계가 다수임을 보아 연구주제에서 학술적 이동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표 3〉 因子分析(제2시기)

인 자 1	인 자 2	인 자 3	인 자 4	인 자 5	인 자 6
노태돈 .87	최몽룡 .92	김태영 .89	신용하 .93	정두희 .85	김용덕 .88
노중국 .80	강인구 .88	이경식 .85	강만길 .90	최승희 .68	송준호 .86
천관우 .77	황기덕 .87	이재룡 .84	이광린 .76	정구복 .62	김인걸 .85
이병도 .75	김재원 .86	이성무 .79	한우근 .70	전해종 .51	이수건 .78
김정배 .75	한병삼 .86	한영우 .77	김용섭 .70		최승희 .73
김철준 .73	윤무병 .85	민현구 .77	송병기 .57		이성무 .73
김원용 .70	김정학 .85	이태진 .72	김인걸 .52		김용섭 .72
이홍직 .65	이용조 .85	김용섭 .59			이태진 .67
이종욱 .64	임효재 .81	강진철 .54			한영우 .54
이현해 .61	김원용 .81	이우성 .50			한우근 .52
김정학 .60	김정배 .77				
김영하 .60	이현해 .77				
신형식 .60					
최몽룡 .56					
이기동 .55					
전해종 .50					
이만열 .45					
고대정치사	선사시대사	고려·조선 사회경제	근대·정치 사회사	조선정치사	조선신분사

인 자 7	인 자 8	인 자 9	인 자 10	인 자 11
고병익 .78	이광규 .90	최병현 .93	황수영 .89	박창희 .88
김성준 .73	최재석 .82	이순근 .91	김영태 .88	이우성 .78
민현구 .73	신형식 .77	김광수 .89	진홍섭 .87	강진철 .77
김당택 .70	이종욱 .73	하현강 .88	김상기 .75	김의규 .69
홍승기 .64	이기동 .71	김두진 .85	이병도 .73	김당택 .59
송병기 .61	김철준 .69	허홍식 .74	이기백 .71	박용운 .56
변태섭 .60	노중국 .67	홍승기 .74	이기동 .71	변태섭 .55
강진철 .56	이기백 .66	변태섭 .72	김철준 .70	김광수 .52
	변태섭 .64	이기백 .69	김영하 .68	
	김영하 .61	이수건 .59	허홍식 .65	
	노태돈 .53	이기동 .57	이홍직 .61	
	이병도 .50	박용운 .57	김두진 .61	
	이홍직 .50	김상기 .54	노태돈 .50	
		이태진 .53		
		김철준 .51		
고려정치사	고대사회사	고려정치· 불교사상사	고대불교사상사	고려정치사

대상으로 하였던 학술문헌에서는 이 저자의 고대사 연구업적이 주로 인지되었고 그 문헌들이 주로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술적 이동에 관한 흔적은 시간이 좀더 경과한 후에야 공인용분석 결과에 나타나리라고 생각된다.

인자분석 결과 각 인자가 나타내는 연구영역을 살펴보면, 고대사연구에서는 정치사, 사회사, 사상사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경제사연구는 별반 나타나지 않음을 관찰할 수 있다. 고려사연구에서는 정치사와 불교사상사 연구가 중심을 이루며, 사회경제 연구가 나타나기는 하나 정치사연구에 비하여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시대사 연구는 사회 경제, 정치, 신분 등의 연구영역이 활발하며, 특히 인자 3의 고려 조선의 사회경제에 적재된 저자들 중 적재값이 높은 김태영, 이경식, 이재룡 등은 토지제도연구에 전념하는 저자들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어느 시대의 연구에 있어서나 정치사 연구영역이 가장 활발한 영역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최근에 가까워옴에 따라 정치사 뿐 아니라 사회 경제사 주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사도값 .30이상을 가지는 인자쌍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이 나타내는 주제영역을 살펴보면, 고대정치사와 고대사회사, 고대정치사와 고대불교사상사, 고대정치사와 선사시대사, 고대사회사와 고대불교사상사, 고려의 정치·불교사상사와 고대 불교사상사, 고려의 정치·불교사상사와 고려 정치사로서 이들 각 쌍이 주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해석되며 이는 군집분석결과 나타난 주제영역을 재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고대정치사와 선사시대사는 음의 값을 보여 이 둘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다른 군집에 속하고 있으며, 양의 유사도를 보이는 쌍은 모두 동일한 군집이나 경계가 연이어 있는 군집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같은 인자분석과정을 통하여 한국사주제영역을 나타내는 각 군집의 세분된 구조와 상호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하위주제에서 연구가 활발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이 식별되었고, 각 연구자가 정진하는 연구영역과 관심을 가지는 연구주제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3.3. 제 1시기와 제 2시기의 構造 比較分析

3.3.1 共引用데이터의 비교

67명의 저자가 두시기에 걸쳐 共引用된 데이터는 동일한 문헌에서 연속적으로 분석되었지만,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제 1시기보다 제 2시기에서 더 높은 빈도의 평균 공인용수와 공인용회수의 범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이 대상저자들이 제 2시기에 더 많이 共引用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각 저자가 다른 66명의 저자와 평균 3회 이상씩 共引用된 것으로 나타난 저자는 제 1시기에 이병도, 김철준, 변태섭, 이기백으로 네 명이며, 이 시기의 가장 중심인물들이다. 이들은 위치도상에서도 중심부분에 위치하며, 다른 저자들과 가장 빈번히 共引用되어 주제영역에서 대표성을 나타내는 저자들이다. 이들의 제 1시기 저자위치도에서의 위치는 그림 3에서처럼 중심부분에 배치되고 있으며, 모두 고대사 영역에 나타나고 있어, 이 주제영역이 제 1시기에서 연구가 가장 활발한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제 2기에 共引用데이터가 약간 많아졌으며, 따라서 다른 66명의 저자와 각각 평균 3회 이상씩 공인용된 저자수도 늘어났다. 이들의 평균수와 총 공인용빈도수는 이기백이 평균 8.7회(총 574회), 김철준이 평균 6.08회(총 401회), 이병도

〈표 4〉 共引用 데이터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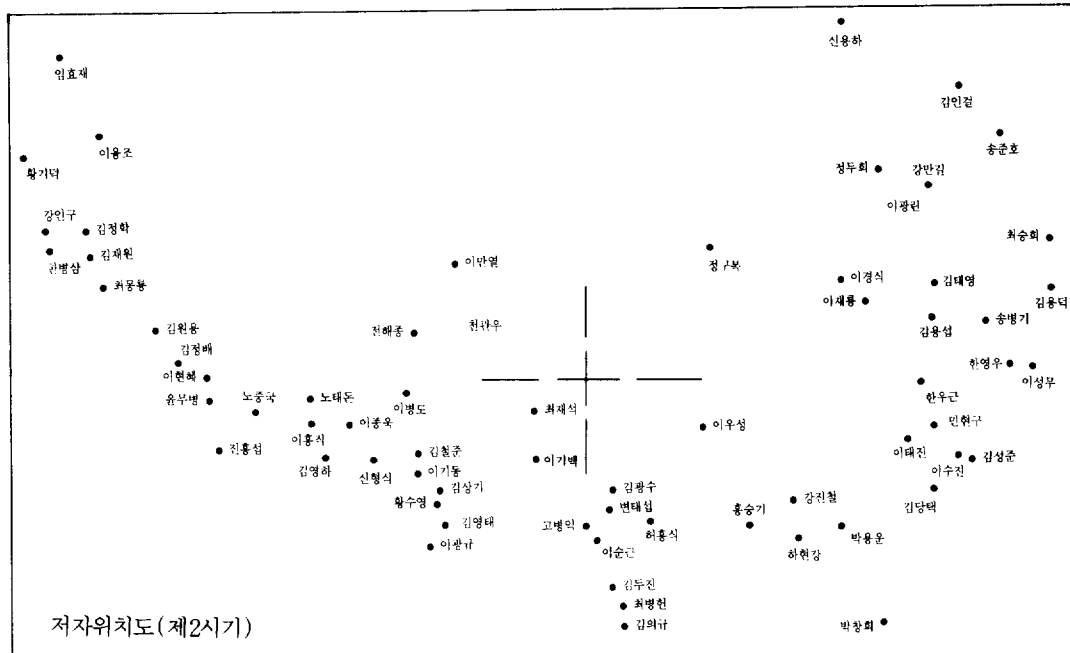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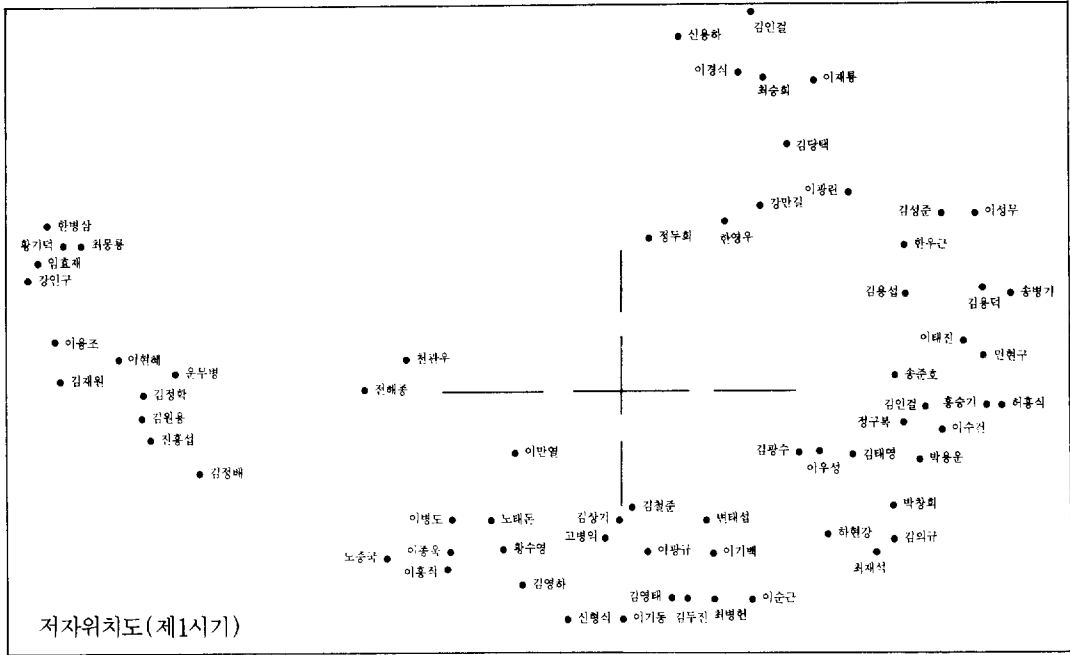
공인용데이터 \ 시기	제1시기 (1908~1984)		제2시기 (1985~1989)	
共引用回數의 범위	0	— 22	0	— 34
평균공인용수의 범위	0.08	— 5.33	0.11	— 8.70
평균공인용수	1.24		2	

가 평균 5.29회(총 349회), 이태진이 평균 4.61회(총 304회), 천관우가 평균 4.52회(총 298회), 변태섭이 평균 4.33회(총 286회), 이기동이 평균 4.27회(총 282회), 김용섭이 평균 3.47회(총 229회), 김정배가 평균 3.35회(총 221회), 이종욱이 평균 3.17회(총 209회), 김광수가 평균 3.14회(총 207회)로 나타났다. 제 1시기의 중심인물들이 고대사 군집에만 나타났던 것에 비하여, 제 2시기에 높은 공인용평균치를 보인 김정배, 천관우, 이종욱, 이기동, 김광수, 이태진, 김용섭 등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자군집도 전체에 산포되어 있으며 각 군집에서 중심적 위치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로이 분화된 영역인 제 2시기의 조선정치사나 조선신분사 군집에 속하는 중심저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2 研究者의 研究傾向의 變化

저자의 위치 변화는 저자의 연구주제가 변경되었거나, 이전의 연구 중 한 부분이 다른 관점에서 재조명되어 새로운 연구영역의 학술문헌에서 이들을 인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질 때 나타난다. 또한 연구경향에 변화를 가진 한 저자가 새영역에서 세운 학문적 공헌이 학술공동체 안에서 인식되어 새로운 동료연구자와 共引用되어 동료들에 의해 이전의 연구주제의 학술적 공헌에 우선하여 새로운 공헌이 평가되므로 저자위치도상에서 저자의

위치도 변경되게 된다. 이때 연구자 자신의 연구경향이나 연구주제가 능동적으로 변경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학술적 공헌이 학술사회에서 뚜렷이 인식되어 과거의 연구결과가 주로 인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저자위치도에서 이 저자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 관성현상(inertia)이 나타난다. 이와는 반대로 한 저자의 연구주제나 연구방향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이전에 출판했던 연구물의 한 부분이나 이론 등이 새로운 각도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 새로운 연구영역에서 새로운 저자들과 공인용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 때에도 이 저자는 타의에 의해 피동적으로 저자위치가 변경되어 학술적 이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학술적 이동의 구체적 원인은 공인용분석만으로는 규명되지 않으며 실제 문헌조사를 통하여서 확인될 수 있다. 한국사영역의 시기별 저자이동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홍섭, 변태섭, 이경식, 정두희, 허홍식 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이동은 문헌조사와 전문가 면담결과 능동적인 연구경향의 변화라고 판단되며, 또한 제 2시기에서 새로운 군집을 형성한 송준호, 김인걸, 김용덕의 경우도 능동적 변화의 결과로 나타났다. 관성현상을 보이고 있는 저자로는 이만열을 들 수 있으며, 이 저자는 삼국시대, 고대사 연구에서 근래에는 근대기독교사 관련연구로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그림 6의 저자위치도 상에서 별반변화를



〈그림 6〉 著者位置圖 比較

〈표 5〉 共引用 데이터의 적합도 비교

적합도 \ 시기	제1시기 (1980~1984)	제2시기 (1985~1989)
스트레스 1 값	0.182	0.158
RSQ 값	0.853	0.891

보이지 않으며, 그림 3과 그림 5의 군집도에서도 계속 고대사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 1시기와 제 2시기의 저자 매핑시에 나타난 적합도를 비교하여 보면 표 5와 같다. 두 시기의 값이 모두 해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시기에 점으로 표시된 저자들의 이동비교에서 살펴 보았듯이 몇몇 저자들의 위치 변화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국사 영역이 급격한 이론의 부각이나 새로운 이론, 방법론의 도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이 아니며, 완만한 변화를 보이는 연구경향과 함께 새로운 이론이나 학파의 등장으로 인한 패러다임 구성보다는 연구영역의 세분화와 체계화로 인한 주제분화 현상을 나타낸다. 또한 주제영역에 따라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도입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3.3.3 知的構造의 變化

한국사는 일반적으로 시대사로 구분한 후 그 안에서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 동안 국내에서 간행된 한국사 관계서지류에서 한국사를 구분짓는 공통적인 관점을 비교해 보면, 먼저 시대사 순으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역사지리 등 세분된 주제로 나누고 있다. 즉 시대사는 일반적으로 고대, 고려, 조선전기, 조선후기, 근대로 나누고 관련주제로 고고학, 고미술, 민속학, 신앙 및 사상

사, 금석학, 언어학, 민족학 등을 추가시켜 주제구분을 하고 있다. 시대배열시, 고대앞에 고고학이 들어가거나 선사시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며, 근대이후 현대가 추가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현대사라는 표목은 서지분류에 모두 나타나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서지가 근대항목까지는 공통적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사 연구영역에 현대사 연구문헌이 아직 다른 시대사 연구분야 만큼 많이 생산되고 있는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한국십진분류법은 한국사를 금석학, 고고학 등 역사보조학과 사전, 축차간행물 등 자료형식, 그리고 시대사별로 구분하고 각 시대사 하에서는 세분된 시대구분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구분하고 있는 한국사 연구영역의 경우 각 주제표목과 하위표목들이 실제 공인용분석에서는 어떠한 구조로 나타나는지를 비교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한국사 연구영역의 知的構造에 나타나는 변화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한국사영역은 이처럼 해당학계나 전문서지 등에서 일반적으로 시대사로 구분된 후 그 안에서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등으로 분류하고 그의 하위주제로써 경제사안에 토지, 조세 등으로 계층구분되고 있으며 공인용분석 결과로 나타나는 연구영역의 경우 시대별로 구분되는 현상이 보여지며, 그 하위주제별 연구영역도 나타나고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시기에는 선사시대-고대사-

〈표 6〉 한국사 영역의 주제군집 비교

1980~84	1985~89
<u>선사시대사</u>	<u>선사시대사</u>
강인구, 김원용, 김정배, 이용조, 이현혜, 임효재, 최몽룡, 한병삼, 김정학, 김재원, 윤무병, 황기덕, 진홍섭	강인구, 김원용, 김정배, 이용조, 이현혜, 임효재, 최몽룡, 한병삼, 김정학, 김재원, 윤무병, 황기덕
<u>고대사</u>	<u>고대사</u>
천관우, 전해종, 이만열, 이병도, 노태돈, 이종욱, 노중국, 이홍직, 황수영, 김영하, 신형식, 고병익, 김철준, 김상기, 이광규, 이기동, 김영태, 이기백, 김두진, 최병현, 이순근, 변태섭, 하현강, 최재석	진홍섭, 천관우, 전해종, 이만열, 이병도, 노태돈, 이종욱, 노중국, 이홍직, 황수영, 김영하, 신형식, 김철준, 고병익, 이광규, 이기동, 김영태, 이기백, 최재석
<u>고려사</u>	<u>고려사</u>
나타나지 않음	김상기, 변태섭, 김광수, 허홍식, 하현강, 박용운, 박창희, 김의규, 최병현, 김두진, 이순근
<u>고려·조선사</u>	<u>고려·조선사</u>
김광수, 김의규, 박용운, 박창희, 이우성, 김태열, 이수건, 강진철, 정구복, 홍승기, 허홍식, 민현구, 송준호, 이태진, 김용덕, 송병기, 김용섭, 한우근, 김성준, 김당택, 이재룡, 이성무, 정두희, 한영우	홍승기, 강진철, 김당택, 이우성, 이태진, 이수건, 김성준, 민현구, 한우근, 한영우, 이성무, 송병기, 김용섭, 이재룡, 이경식, 최승희
<u>조선정치사</u>	<u>조선정치사</u>
나타나지 않음	정두희, 정구복
<u>조선신분사</u>	<u>조선신분사</u>
나타나지 않음	김용덕, 송준호, 김인걸
<u>조선·근대사</u>	<u>근대사</u>
신용하, 강만길, 이광린, 김인걸, 최승희, 이경식	신용하, 강만길, 이광린

고려·조선사-조선·근대사와 같이 각 군집이 시대별로 구분되며 제 2시기에는 선사시대-고대-고려-고려·조선-근대와 같이 구분되고, 제 1시기에 비하여 제 2시기에는 단일 시대사로 독립한 영역이 늘어났다. 전기의 고려 조선사영역이 복합 시대구성으로 나타나 고려가 고대와 조선에 끼어 있는 현상을 보인 반면 제 2시기에 이르러 독립적 군집으로 나타났다. 제 2시기에 특별한 이론이나 방법론의 변화로 인한 분리가기 보다는 연구영역이 단일시대사별로 중점연구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67명의 조사대상자는 저자위치도에 표시되어 군집을 이루게 되고, 이 각 군집이 연구영역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이미 앞에서 증명된 바 있다. 제 1시기에는 4개의 군집으로 나타난 반면 제 2시기에는 7개의 군집으로 분화를 보이고 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시기를 통하여 가장 안정성있고 확고한 군집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영역은 先史時代史이며, 양시기에 걸쳐 거의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 주제영역의 주된 연구방법인 고고학적 방법론과 지식의 적용으로 인하여 안정된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1시기에 비해 제 2시기에는 군집위치가 古代史와 근접하는 현상을 보이며, 이는 고고학적 연구와 고대연구가 서로 상호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림 3과 그림 5 참조)

제 1시기의 고대사 군집은 제 2시기에 고대사와 고려사로 분리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그림 3의 제 1시기의 저자군집도에서 고대사의 오른쪽에 나타났던 저자들과 고려 조선 군집에 나타났던 고려사저자들 중 고려의 정치지배 권력의 변동과 불교사상사 관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저자들이

체계적인 연구영역의 성장을 가져와 그림 5와 같이 제 2시기에 고려사라는 독립된 군집을 가지게 되었으며, 고대사 또한 고려사와의 복합적인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고대사 중심의 연구영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고대사 연구영역은 근대 한국사연구의 모체가 되었던 영역으로 이 영역의 저자들은 연구경향에서 점차 시대별 전문연구 경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고대사 전공자 중심의 독립적인 학회가 구성되었다. 1987년에 창립된 한국고대사연구회는 「한국고대사연구」를 발간하며, 1990년에 한국고대학회가 창립되어 고대사 중심의 연구활동을 행하고 있다.

제 1시기의 고려·조선사 군집은 제 2시기에 이르러 고려사, 고려·조선사, 조선정치사, 조선신분사와 같이 네개의 군집으로 나뉘어지며, 이는 고려·조선사군집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연구영역이 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신분사로 명명된 군집은 그동안 조선시대의 사회사연구부문에 많은 성과를 나타냈는데 이 저자들 중 신분연구 영역을 共有하는 저자들의 연구체계확립으로 새로운 저자군집을 형성하게 되어 이 연구영역의 성장을 반영하고 있다. 표 6과 같이 조선신분사 영역은 제 1시기에는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제 2시기에 이르러 세명의 저자가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 1시기의 고려 조선군집을 근거로 성장 분화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 1시기의 고려 조선사 군집은 제 2시기에 이르러 조선사안에서의 세분된 연구영역으로서 분화과정을 보이는 것 이외에도 고려사 군집으로의 일부 이전도 보여주고 있어 가장 변화가 많은 영역으로 분석된다.

제 2시기의 고려·조선사영역의 상단부분에 근접하여 있는 이경식, 김태영, 이재룡, 김용섭 등의

공통 연구 영역은 토지문제이며, 이 저자들은 인자분석식 고려·조선사회경제에만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영역이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새로운 하나의 군집을 구성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연구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제 1시기의 조선 근대사 영역에서는 조선말과 근대사 연구의 중심저자로서 이광린, 강만길이 나타났다. 제 2시기에 이르러 강만길, 이광린, 신용하가 주로 조선말 근대사에 연구 영역을 공유하며, 연구체계를 확립하여 근대사 주제 영역의 성장을 가져왔다. 근대사연구는 다른 시대 연구보다 구성원이 적은 군집으로 나타나 한국고대사나 중세사연구에 비하여 학문적으로 본격 연구되기 시작한 연륜이 짧음을 보여준다. 해방후에야 비로소 이 영역의 연구가 구체화 되었으나 식민주의 사관의 극복 등과 같은 학문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주제적 연구의 틀을 가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80년대에 들어서 근·현대사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소장 연구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논문도 많이 발표되기 시작했으나 연구연한이 짧은 영역이므로 주제구조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 그 원인은 본 조사대상의 선정시 공인용빈도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 영역의 연구는 앞서 밝혔듯이 연구문헌조사 방법과 동시에 여러가지 사회과학적 방법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는 근대사 영역이 근대사회의 이론으로 성립된 사회과학과의 관련이나 상호협동을 통해서 더욱 심도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자연스런 연구경향과 추세라고 판단된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과학과의 협동이나 다원적인 관계는 현대사 연구영역에 이룰수록 더 깊어지리라 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한국사에서 현대사의 시점에 관한 여러가지 의

견들이 있으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해방이후를 현대사의 기점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역사학의 학문연구 대상은 최소한 한세대인 30년이 지나서야 하나의 사건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1960년 초반까지가 한국사에서 현대사의 연구대상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 영역에서 해방이후 1960년대까지의 연구는 정치사회적 현상으로 인하여 연구의 미비현상이 있어 왔으므로 80년대 이후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현대사연구가 활성화되어 연구자 폭이 확대됐다고는 하나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1986년에 역사문제 연구소의 설립과 주로 근 현대사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역사비평」지의 발간, 1988년에 창립된 한국역사연구회와 학회지인 「역사와 현실」의 간행 등과 같이 80년대 이후 이 연구영역의 연구에 중점을 두는 학회와 학술지의 증가현상을 통하여서도 이 영역의 연구활성화 환경을 인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이 연구영역은 연구자층이 충분히 형성되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뒤에야만 학술문헌의 계량적 측정결과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4. 分析結果에 대한 評價

4.1 리뷰지에 대한 評價

한국사영역의 리뷰들을 조사해 본 결과, 해방이후 80년대까지를 조망한 대표적 리뷰로 역사학회편인 「현대 한국사학의 동향 : 1945-1980」과 진단학회가 간행하고 있는 「진단학보」 57호에 수록된 「한국학연구 반세기 : 1945-1985」의 한국사관계 리뷰와 「국사관논총」 10집(1989)에 수록된 회고와 전망에서 1970년대 중반에서 1988년까지의 연구성과를 정

〈표 7〉 리뷰지에 나타난 주제군집

리뷰지에 나타난 군집	고 고 학	고 대 사	고 려 사	조선전기	조선후기	근 대 사
저 자 명	김 정 배	이 기 백	변 태 섭	한 영 우	김 용 섭	이 광 린
	김 재 원	김 철 준	하 현 강	이 성 무	김 인 걸	신 용 하
	김 정 학	신 형 식	박 용 운	이 재 룡	김 용 덕	강 만 길
	최 몽 룡	이 만 열	허 흥 식	김 태 영	송 준 호	
	김 원 용	이 기 동	강 진 철	이 경 식		
	이 용 조	이 종 옥	홍 승 기	정 구 복		
	임 효 재	천 관 우	김 두 진	정 두 회		
	윤 무 병	전 해 중	김 광 수	한 우 근		
	한 병 삼	김 영 태	박 창 희	송 병 기		
	강 인 구	황 수 영	이 우 성	최 승 회		
		진 흥 섭	민 현 구	이 태 진		
		이 병 도	김 의 규	이 수 건		
		이 흥 직	최 병 헌			
		노 태 돈	김 상 기			
		노 중 국	김 성 준			
		이 현 해	민 현 구			
	이 광 규	김 당 택				
	최 재 석	고 병 익				
연구결과 나타난 군집	선사시대사	고대사	고려사	고려·조선사 조선정치사, 조선신분사		근대사

리종합한 리뷰가 가장 방대한 리뷰기사로 평가되며, 이들은 모두 해당 주제의 중진전문가들에 의해 집필되었다.

이들 리뷰지에 나타난 연구자 자신들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한국사 연구영역에서 그 학술적 업적이나 저서가 언급되는 저자들을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이들을 분석하여, 리뷰기사에서 언급된 저자들을 주제별로 표시하여 표 7을 만들었다. 많은

저자들이 여러시대에 복합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그들의 공헌이 여러시대사, 여러주제에 걸쳐 중복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단일시대사에서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저자 또는 같은 주제를 사용하여 시대별 비교연구를 행하는 저자 등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대상집단에서 북한학자 1명을 제외한 66명 중 97%(64명)의 연구자들이 80년대 중반까

지의 한국사학계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었음이 한국사학계의 자체 평가에서 나타났다. 시대사에서 중복으로 나타나는 저자는 그가 주된 공헌을 한 것으로 나타난 주제에 분류하였다.

시대구분에 있어서 리뷰기사에서는 선사 고대사를 제외하고는 각 시대사가 왕조별로 구분되며, 조선시대사는 조선전기와 조선후기로 나누어 분류되고 있음에 비하여 저자공인용결과 나타난 구조에서는 고려시대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저자공인용에 의한 군집분석결과와 리뷰기사 분석결과 사이에 큰 차이점은 없으며 거의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현혜, 고병익의 위치에 약간 차이가 있으나, 이현혜는 고고학과 고대사에 고병익은 고대사와 고려사에 각각 나타나는 저자로서 주제상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저자공인용 분석에 의한 주제구조가 한국사학계 전문가들에 의한 학문 자체내의 주제분류 양상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본 연구결과와 객관적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4.2 전문가에 의한 評價

군집분석결과 생성된 일곱개의 군집에 명칭을 부여하는 작업은 앞서도 밝혔듯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각 군집 구성요소의 대표성이 있고 또한 특성이 드러나는 명칭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분석대상문헌에서 인용된 이들 저자들의 저작물 중 가장 많이 인용된 자료의 서명을 근거로 주제분석을 행하여 그 주제를 부여하였다. 이와같이 인용된 문헌을 근거로 한 주제명 부여가 과연 공정성이 있는지를 평

가해 보며, 또한 이에 대한 한국사학자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직접 면담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즉 '85~'89년도의 군집도를 각 군집의 명칭이 없는 상태로 한국사 연구자들에게 제시하여 그들 각자가 각 클러스터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도록 요청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각 군집은 15명의 주제 전문인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통된 특질을 찾아내어 명명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이 분석되었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한 차이를 보이는 주제명은 별반없으나, 정두희와 정구복이 속한 조선정치사를 사학사영역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정구복은 사학사영역에 많은 연구업적을 남기고 있으나 왕조의 사료편찬시 그것을 주관하는 정치적 배경연구 등 정치사적인 연구 측면이 강한 것과 정두희의 정치세력 연구가 공통점으로 나타나므로 조선정치사로 명명함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근대사의 경우 사회사상사, 운동사적 연구 측면이 매우 돋보였으나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근대사란 일반명칭이 합당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군집명칭부여에 있어 본 연구에서 부여한 명칭과 전문가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저자의 주된 주제 영역의 경우 전문가들의 별다른 지적은 없었으나, 이만열의 경우 고대사 군집에 속해있는 것에 대하여 이 연구자의 주제영역을 근대기독교사로 지적하는 응답자들이 많았으며, 이는 이 저자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성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비교에서 저자공인용분석에 의한 주제영역의 구조를 전문학술영역에 직접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비교하여 본 결과 이것은 유사하게

〈표 8〉 전문가들이 부여한 군집명

연구결과 나타난 군집명	한국사 연구자들이 부여한 명칭
선 사 시 대 사	선사시대사, 고고학, 초기국가시대
고 대 사	고대사, 고대사회·정치·사상사
고 려 사	고려사, 고려정치·사상사
고려·조선시대사	고려말·조선시대사, 고려·조선의 사회경제사
조 선 정 치 사	조선 정치사, 사학사
조 선 신 분 사	조선신분사, 조선사회사, 향촌사회사
근 대 사	근대정치사, 근대정치운동사, 근대운동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주제의 구조나 주제명칭에서 거의 유사함으로 나타났으나, 주제구조에서 조선시대의 정치사와 신분사영역이 독립된 주제영역을 형성했음을 보여주고 있어 기존 서지상의 주제 분류보다 약간 변화된 구조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시대사는 정치사 및 사회사 위주로 구성되는 경향이나 조선시대처럼 사회경제사 연구영역을 가지면서 조선정치사와 조선신분사 연구영역이 각각 별도의 패러다임을 구성할 정도로 각 시대사 연구영역의 제반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들의 명칭부여에 별다른 이의없이 주제구성원들의 특징에 따라 사회사 또는 신분사, 조선정치사 또는 사학사라 칭하였기 때문에 이는 이미 전문영역에서 이 영역이 합의에 이른 연구영역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5. 結 論

본 연구는 한국사 영역의 지적구조와 이 구조의 변천과정을 규명하기 위하여 저자공인용 데이터에 근거한 다변량분석을 이용하였으며 검증과정은 문헌 조사와 면담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영역의 학술논문에 나타난 共引用데이터를 분석하였을 때 각 저자는 유사도에 따라 知的空間上에 위치가 결정되고, 유사도가 높은 저자끼리는 근접하게 매핑되고, 각 저자사이에 유사성은 주제유사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저자들은 유사성에 따라 군집을 형성하였고, 각 群集은 한국사영역의 하위주제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사영역에도 실증사학과로 불리는 학과가 인지되기는 하나, 지적구조를 이루는 각 군집의 기본은 한국사영역의 주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인용분석결과 나타나는 知的構造는 한국사영역의 주제구조가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각 저자들이 매핑되는 구조의 전개에 따라 수평축인 일차원은 주로 연구주제의 변화를 나타냈고, 수직축인 이차원은 연구방법이나 유형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연구주제는 기본적으로 선사시대사, 고대사, 고려사, 조선사, 근대사와 같이 시대순으로 구분되었고 이차원의 상단으로 나아갈수록 인문과학적 연구방법과 더불어 사회과학적 연구방법의 적용 등 연구방법의 다양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군집으로 나타나는 각 하위주제영역은 더욱 미시적인 주제 구성요소들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

라 주제의 관련성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활동이 활발한 연구영역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식별되며, 각 연구자의 주제 관련성과 연구공헌의 범위를 인지 할 수 있었다. 한국사영역은 각 시대사에서 정치사연구가 공통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 근세사에 이르러는 사회경제사적 연구가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다른 66명의 저자와 공인용된 평균회수가 많은 소수의 연구자들은 한국사영역의 학술커뮤니케이션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주요연구자들이며, 이들은 고대사영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는 고대사가 한국사 연구의 학문적 발전의 기반이 되어 왔다는 것과, 고대사가 한국사영역에서 연구가 가장 활발한 영역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여섯째, 한국사 연구는 주변학문과 많은 학제적 연구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선사시대사 군집구성원의 거의 전원이 고고학 연구자들로서 한국사의 여러 보조 학문중 고고학이 선사시대사연구에 전적으로 공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한국사영역의 知的構造는 1980년대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적공간에서 저자위치의 변화와 4개의 군집에서 7개의 군집으로 분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제의 세분화과정은 학문구조의 발전현상을 나타내며 학회의 제반활동과 전문적 분화과정과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여덟째, 군집의 구성원과 군집명 부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한국사영역의 전문연구자들의 평가와 비교한 결과 군집구성원 구성과 군집명에 거의 유사함을 보였으며, 著者共引用에 의한 지적구조연구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행할

수 있는 후속연구로는, 한국사와 관련된 주제영역을 조사하여 韓國學分野의 학문구조와 변화를 규명하는 것과, 국내의 기존 주제접근 시스템인 주제명표목표의 개정과 새로운 시소러스 구축시에 실증적으로 나타난 한국학의 학문구조가 반영되도록 하는 연구를 제시할 수 있다.

參考文獻

- 김영진. 1986. “논문의 동시인용을 통한 지적구조의 규명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 : 106-135.
- 김현희. 1989. “저자들의 동시인용과 하위주제간 추이행렬시스템을 통한 주제 문헌의 구조적 분석에 관한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6(2) : 21-44.
- 노옥순. 1989. “인문과학자의 연구진행 특성과 도서관 : 정보요구와 정보관리의 제현상에 관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논총 제55집, 109-143.
- 정춘화. 1980. “한국역사학자의 문헌이용실태 : 인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 조명희. 1992. “전문영역의 주제구조분석.” 도서관학 제22집 : 331-360.
- Bayer, A. E., Smart, J. C., and McLaughlin, G. W. 1990. “Mapping Intellectual Structure of a Scientific Subfield through Author Cit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1 : 444-452.
- Bellardo, T. 1980. “The Use of Co-citations to Study Science.” Library Research 2 : 231-237.

- Culnan, M. J. 1987. "Mapp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MIS, 1980-1985. A Co-citation Analysis." *MIS Quarterly* 11(3) : 341-353.
- Griffith, B. C. 1988. "Exact Fits in Bibliometrics : Some tools and Results." In : Egghe, L. and Rousseau, P. (eds.) *Informetrics* 87/88. Amsterdam : Elsevier, 85-95
- Griffith, B. C. Small, H. G., Stonehill, J. A., and Dey, S. 1974. "The Structure of Scientific Literature. II : Toward a macro and Microstructure for Science." *Science Studies* 4 : 339-365
- Hopkins, F. L. 1984. "New Causal Theory and Ethnomethodology : Co-Citation Patterns Across a Decade." *Scientometrics* 6 : 33-53
- Lenk, P. 1988. "Mapping of Fields Based on Nomin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4 : 115-122
- McCain, K. W. 1983. "The Author Cocitation Structure of macrometrics." *Scientometrics* 5(5) : 277-289
- McCain, K. W. 1984. "Longitudinal Author Cocitation Mapping : The Changing Structure of Macro economic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5(6) : 351-359
- McCain, K. W. 1986. "The Paper Trails of Scholarship : Mapping the Literature of Genetics." *Library Quarterly* 56(3) : 258-271.
- McCain, K. W. 1986. "Cocited Author Mapping as a valid representation of Intellectual Astructur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7(3) : 111-122
- McCain, K. W. 1987. "Citation Pattern in the History of technolog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9(1) : 41-59.
- McCain, K. W. 1988. "Evaluating Cocited Author Search Performance in a Collaborative Specialty."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9(6) : 428-431
- McCain, K. and Turner, K. 1989. "Citation Context Analysis and Aging Patterns of Journal Articles in Molecular Genetics." *Scientometrics* 17 : 127-163.
- McCain, K. W. 1990. "Mapping Authors in Intellectual Space : Population Genetics in the 1980s" *Communication Research* 16(5) : 667-681.
- McCain, K. W. 1990. "Mapping Author in Intellectual Space : A Technology Overview."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1(6) : 433-443.
- Marshakowa, I. V. 1989. "Citation Networks in Information Science." *Scientometrics* 3(1) : 13-26
- Mullins, N. C. 1973. *Theories and Theory Groups in contemporary American Sociology*, New York : Harper & Row.
- Paisley, W. 1990. "An Oasis Where Many Trails

- Cross : The Improbable Cocitation Network of a Multidisciplin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1 : 459–468.
- Price, D. J de Solla. 1979. “The Revolution in Mapping Science.” *Proceedings in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16 : 249–253
- Small, H. 1973. “Co-citation in the Scientific Literature : New Meas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Document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4 : 265–269.
- Small, H. G. 1980. “Cocitation Context Analysis and Structure of Paradigms.” *Journal of Documentation* 36(3) : 183–186.
- Small, H. G. 1981. “The Relationship of Information Science to the Social Science – A Co-citation Analysis.” *Information Process & Management* 17(1) : 39–50
- Small, H. G. 1982. “Citaton Context Analysis.” In : Dervin, B. and Voigt, M.(eds.)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s*. Norwood, N. J. : Ablex, 287–310
- Small, H. G. 1986. “The Synthesis of Specoalty Narratives from Co–Citation Cluster.” *Journal of teh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7(3) : 97–110.
- Small, H. G. and Greenlee, E. 1986. “Collagen Research in 1970s.” *Scientomerics* 10 : 95–117
- Small, H. G. and Greenlee, E. 1989. “A Co–citation study of AIDS Research.” *Communication Research* 16(5) : 642–666.
- Small, H. G., Griffith, B. C. 1974. “The Structure of Scientific Literature I. Identifying and Graphing Specialties.” *Science Studies* 4 : 17–40.
- Small, H. G. Sweeney, E. and Greenlee, E. 1985. “Clustering the Science Citation Index Using Co–Citation. 2. Mapping Science.” *Scientometrics* 8 : 321–340.
- Sullivan, D. , Koester, D., White, D. H. , Kern, R. 1980. “Understanding Rapid Theoretical Chang in Particle Physics A Month by Month Co–Citation Analysis.” *Scientoics* 2(4) : 309–309.
- Swanson, D. R. 1987. “Two Medical Literatures that are Logically but not Bibliographically Connecte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8(4) : 228–233.
- Vitalari, N. P. 1985. “The Need for Longitudinal Designs in the Study of Computing Envirenments.” In : Mumford, E. et al. (eds.) *Research Methods in Information Systems*. North–Holland : Elsevier, 243–265.
- White, H. 1981. “Cocited Author Retrieval Online : An Experiment with the Social Indicators Literatur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2(1) : 16–22.
- White, H. D. 1983. “A Cocitation Map of the Social Indicators Movemen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4 : 307-312.

White, H. D. 1986. "Cocited Author Retrieval."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5 : 93-99.

White, H. D. and Griffith, B. C. 1981a. "Author Cocitation : A Literature Measure of Intellectual Structur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2(1) : 63-171.

White, H. D. & Griffith, B. C. 1981b. "A Cocitation Map of Authors in Judgement and Decision Research." In : Anderson, B. F., et al. (eds.) Concepts in Judgement and Decision Research : Definition, Sources, Interrelationships, and Comments. N. Y. : Praeger, 261-271.

White, H. D. and Griffith, B. C. 1982. "Authors as Markers of Intellectual Space : Cocitation in Studies of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Journal of Documentation 38 : 255-272.

White, H. D. and McCain, K. W. 1989. "Bibliometrics."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4 : 119-186.